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2018년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2018년 국외선진사례 연수

기간 | 18. 10. 17 ~ 10. 25 / 7박 9일

인원 | 김수문 위원장 등 12명

연수지역 | 영국 / 포르투갈 / 스페인

연수 개요

- 연수목적

- 해외 추진 우수정책(도시계획 및 정비, 재난·소방 안전분야) 견학
- 선진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한 자료 수집과 정책발굴 연구

- 방문 주요 장소

방문일정		방문지
10월 18일(목)	런던	템즈베리어
10월 22일(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주의회
10월 23일(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시 재난재해조정센터
10월 24일(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22@혁신지구

주요 방문지 활동 현황

런던



런 던

- 시설내용

- 런던 중심부 템즈강에 위치한 홍수 조절용 장벽(1982년 준공)
- 템즈강의 수위를 조절하여 주변지역의 침수방지
- 길이 520m, 콘크리트 교각(9), 수문(6), 작은 고정수문(4)



템즈베리어



템즈베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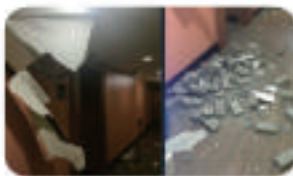
- 미래예측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져 2070년까지 연장 계획을 수립 중
- '템즈강 어귀 2100 프로젝트(2000년의 홍수 위험등을 고려)'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을 계획
- 제2의 계획은 향후 100을 대비(2070년까지 배리어 추가 신설)



지진, 태풍에 의한 피해사례

- 경주 지진피해 2016.09.



- 포항 지진피해 2017.11.



- 영덕 태풍 콩레이 피해 2018.10.



내진보강 사업계획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계	476	175,203	36	1,123	84	11,117	21	2,178	13	2,688	322	158,097
경북도	90	2,423	36	1,123	43	1,100	11	-	-	-	-322	-
시군	386	172,780	-	-	41	10,017	10	1,978	13	2,688		158,097

* 내진율 : 37,6%(2017년) → 46,8%(2018년) → 53,9%(2021년, 도 100%)

– 내진성능 조기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국비지원 건의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지방세 감면, 풍수해보험 등 홍보)

–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 추진 : '18년 약 220개소, 520억원

* 내진율 : 18,7%(2016년) → 41,3%(2018년) → 100%(2024년)

관련기사

서울에 '대심도 배수관' 7곳 뚫는다

국토개발 관련 자료

서울에 '대심도 배수관' 7곳 뚫는다

선별·완강로·광남역 등 빗물정수 취약지역 설치

문화일보 | 이경희기자 | 입력 2011. 10.17 14:11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우곡·봉타역·배산 지역 7곳과 압구정·초대방 지하 배수관인 '대심도 배수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용문구 호가동에서 설계권을 갖는 당해원·대심도 배수관 건설을 포함해 2012년까지 신촌·화곡동, **홍성구 천왕동, 압남동, 용마루·신대방동 일대 등 빗물 취약 지역에 대심도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심도 배수관 설치 예정 지역

구/지구	대심도 지역	시공예요	소요예산(억 원)
종로	288동 일대	설치로·완강로 2.0km	39억 원
영등포구	4동과 5동과 일대	신설로·완강로 4.3km	188억 원
용산	용산 선강동 일대	신설로·완강로 2.0km	100억 원
관악·봉곡	4동과 일대	신설로·완강로 2.8km	120억 원
강남	강남역 일대	완강로·완강로 1.5km	121억 원
동작	신대방동 일대	신설로·완강로 3.2km	130억 원
강동	강동 일대	완강로·완강로 1.8km	80억 원

매년 적지다 한강 또는 역전지역을 잇는 이들 대심도 배수관은 **최대 100~300cm 깊이에 지름 90~250cm 규모로 건설**돼 서울 전체 배수시스템에 '고색모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하수관을 지정한 대로 지하에 굴러 있어 여름철에 흙이 들어 배수관詰체를 일으키거나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 등으로 공사해 처리를 이 일다. 그러나 대심도 배수관을 지하 깊은 곳에 굴러 있어 파일을 하기가 비교적 쉬운 해다가 처음 올 한 차례는 대목 많았었다.

시는 이들 대심도 배수관을 모두 건설 지역 **총 배수 200만톤/일대,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또 자문에서 설계한 지역 3km를 넘는 용문동 배수관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한강까지 3.5km, 신촌 화곡동에서 신왕동까지 4.3km를 넘는 대심도 배수관을 우선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 문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문동 배수관을 2012년 3월 준공예약을 마친 후 2년에 걸쳐 시공을 거쳐 2014년 완료 예정이다.

또 신왕동·천왕동·신대방·우곡동·대방동 등 5동과, 신대방·완강로·우곡동·강남 3동 지역 보수를 할 예정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지역 외에도 용마루지역에서 완강까지 2km, 강남역에서 천왕까지 8km, 용마루·신대방역에서 천왕까지 3.2km, 강동구 일동에서 천왕까지 3.8km 구간엔 대심도 배수관을 전지역으로 설치하기로 한 행정 검토를 마쳤다.

시 관에서는 '자녀 생활' 보편화사업 하에서 '통수'에 걸맞은 정비된 하수관이 이르면 수문으로 시간당 35m의 배수능력을 갖게되면 정비된 대심도 배수관은 물론과 '우수역의 고속도로'라며 '천사'가 운행되면 시간당 최고 100m의 배수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경희기자 ksh@kookmin.co.kr

주요 방문지 활동 현황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

- 시내에 위치한 Barcelona 22@ 지역은 기존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서, 주거 및 리서치센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재생
- 바르셀로나 미디어 센터 등 주요건물들이 입주, 기업건물을 활용하여 업무공간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
-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 지역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 및 지역명소로서의 랜드마크로 부각



바르셀로나22@ 혁신지구



3단계 행동

- 1단계 : 도시 인프라 정비
- 2단계 : 경제활동의 변화
- 3단계 : 사회적 변화

프로젝트 리더십: 현재 상황 및 예측

22Barcelona: 모음 및 활동



22Barcelona: 동쪽을 변화 시각형 포함



관련기사

사회

사회일반

경제 끝없이 추락해도 관계자 회의 '0'...市, 사실상 두 손 놓았나

f t g n 기사머브내기

인쇄

구미산단 최악의 몰형

북한일보 기자 2016-10-31

기사가운데기사더보기



구미시내에 공장 폐쇄가 이어지는 모습. (가운데) 구미시내에 공장 폐쇄가 이어지는 모습. (가운데) 구미시내에 공장 폐쇄가 이어지는 모습.

[구미] 구미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대들보인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과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미산단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북은 물론 대구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획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구미산단 수출 실적은 19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점(2015년 10월) 대비 13억달러(6.7%) 감소했다.

2단계 재검토 '발목'... 道, 사업 방향 못잡고 우왕좌왕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난항



전체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인구 2만5000명을 목표로 4.28㎢에 조성된 1단계 신도시의 모습. 경북도 제공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북도가 2단계 사업계획과 조성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초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선정 연내 해결될까

정창오 기자 |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경북지역에 건설예정인 통합신공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전경. 2018.10.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방부가 지난 2월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2곳을 결정하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곳곳에서 빨간물이 켜지고 있다.

정책제언



-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및 상습침수 지역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배수 시설 설치



- 시방서에 맞춘 재해재난에 대비한 정밀시공과 정기적 안전점검



- 재개발지역내 기존 공장과 건축물들을 활용한 신구(과거-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개발

결론



새로운 가치관 정립

- 인식의 틀 탈피

-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의 해결방안 탐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지

-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관점

-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정립



THANK YOU

감사합니다